

3 주상 절리와 포트 홀

화쇄류가 식어 굳어질 때 수축하여 많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세로 방향의 이 균열은 마치 기둥을 늘어놓은 것처럼 보여 '주상 절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폭포가 똑바로 깎아지른 듯이 솟아 있는 이유는 이 기둥과 같은 바위가 쓰러지듯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포 위에서는 무수한 포트 홀을 볼 수 있습니다. 물살에 의해 옮겨진 돌은 암반을 깎아 구멍과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9만년 전에 탄생한 이 바위는 무너지기 쉽고 잘 깎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라지리바시 다리

1923년에 건설된 5련 아치식 다리입니다. 다이쇼 시대(1912~1926년)가 되어 호히선에 오가타역이 생기자 '지금까지의 목제 다리로는 문물을 교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공을 들여 이 돌다리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돌다리의 재료는 이곳에서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아소 용결 응회암입니다. 암석치고는 가공하기 쉬운 돌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이러한 돌다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9만년 전 일어난 일

이 폭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폭포의 모양을 만든 바위는 거대한 하나의 바위로 여기 오이타 분고오노 지오 파크와 가장 관계가 깊은 돌인 '아소 용결 응회암'이라 불리는 암석입니다. 이 '아소 용결 응회암'은 구마모토현에 있는 '아소산' 분화로 인해 태어난 돌로 지금으로부터 9만년 전 대분화에 의해 화쇄류가 변한 것입니다.

46억년이라고 하는 지구 활동과 비교하면 불과 9만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오래전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폭포 위의 포트 홀(돌개구멍)

산노미야샤 미코시(제례 때 신위를 모시고 메는 가마)의 행차로

강 안의 도리이

수위가 높아지면 통행이 금지 돼요.

오가타시모 용수로의 수문도 아치식 석문입니다.

2 수로를 이용한 사람들의 생활

이 폭포 바로 위에 있는 수로는 '오가타시모 용수로'라 불리며 헤이안 시대(794~1185년) 말기의 유력 호족, 오가타 사부로 고레요시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폭포로 떨어지기 전에 수로를 만든다'라는 옛 선인의 지혜는 지금도 현역 수로로서 활약, 5km 앞까지 물을 옮기며 오가타 오천석이라 불린 풍요로운 수확의 토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오가타 니노미야 하치만 신사

하라지리 용수로

하라지리 폭포 상류의 양쪽에는 수로의 취수구가 많이 있습니다. 오가타시모 용수로, 하라지리 용수로, 노나카 용수로, 오가타카미 용수로 외에 상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포가 계기가 되어 상류로부터 물을 끌어와 많은 토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키미바시 다리

포토존 표지 사진은 여기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아소의 대분화로 만들어진 바위

대분화의 흔적

9만년 전 아소산이 분화했을 때 연기(화산가스나 용암, 바위, 화산재 등)가 상공으로 1만 미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연기가 떨어져 화쇄류가 되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원래 저지대였던 오노가와 유역은 모두 이것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녹으면서 서서히 식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아소 용결 응회암'이라 불리는 암석이 되었습니다.



오가타 3샤 배치도

'가와고시(강 건너기)'는 약 1시간에 걸쳐 거행되며, 산노미야와 니노미야의 우치코(같은 씨족신을 모시는 사람들)가 힘을 합칩니다.

미치노에키 하라지리노타키

오가타 세 신사의 가와고시(강 건너기) 축제

11월 하순, 이 폭포 위를 미코시(제례 때 신위를 모시고 메는 가마)가 건너는 오가타 세 신사의 가와고시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매년 11월 하순에 열리는 오가타 이치노미야, 니노미야, 산노미야의 연합 축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산노미야에서 미코시가 폭포 위의 강을 건너 오른쪽의 니노미야까지 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는 오가타시모 용수로 취수구에 반드시 미코시를 넣습니다.

이것은 물을 순조롭게 옮겨 주는 수로에 대한 감사와 번영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폭포 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로와 이것을 지키는 이치노미야, 니노미야, 산노미야의 세 신사가 함께 모여 축하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날 세 신사가 함께 연회를 열어 폭포 위에서는 웅장한 오가타 신사의 가구라(제례 시 연주하는 무악) 연주와 사람들의 환성이 울립니다.



아소 화쇄류의 이동 이미지도



1 아소의 대분화가 만든 바위

여기에 있는 바위는 아소 용결 응회암입니다. 폭포의 바위와 마찬가지로 9만년 전 화쇄류가 식어 굳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쇄류에 포함되어 있던 경석이 강한 압축을 받고 부서진 것입니다. 폭포 위의 바위에도 같은 줄무늬가 많이 있으며 위에서 보면 원형, 옆에서 보면 렌즈나 줄기와 같이도 보입니다. 장소에 따라 화쇄류의 굳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 폭포는 강하게 굳은 부분으로 압축된 경석이 그 증거입니다.